

“실패한 고등교육 정책... 대학 아닌 교육부 책임”

이형철 국교련 회장 쓴소리
 설익은 정책들 획일적으로 강제
 황폐화된 대학, 자구책 강구해야



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성화 방향 등을 고려한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부족한 채 설익은 정책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회장은 정부와 교육부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대학들도 황폐화된 대학 현실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교수들의 참여와 희생은 필수적”이라며 “교수들이 나설 때 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회장은 “지난 10여년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실질적인 대학예산이 감소했고, 서울 소재 대학 대비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 하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교련은 올해도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방대학 몰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임을 직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이형철 상임회장(경북대 교수·사진)이 교육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상임회장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선진국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했던 20세기에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교육 시스템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며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했다.

이 상임회장은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구호로만 대학구조조정을 외치며 형식적인 대책만을 내놓았다”며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대학 스스로가 입학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관리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스스로가 입학 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관리하라고 한다”며 “고등교육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교육부가 유체 이탈 화법으로 대학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융합전공·학과 설치 등을 통해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

국민대 학생들 독립운동 다큐 제작

“연해주서 울리는 고려인의 선율”

고려인 4세 닐루파르 주인공으로
 최재형 기념사업회와 공동 기획
 “조국에 대한 사랑·통일의 꿈 담아”

국민대영화전공 학생들이 학교기업과 공동으로 제작한 고려인 소재 독립운동 다큐멘터리가 곧 선보일 예정이다.

5일 국민대에 따르면, 국민대 영화전공 학생들은 국민대 학교기업 HAL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독립운동 관련 다큐멘터리 ‘로드멜로디’를 제작했다.

로드멜로디는 2020년 순국 100주년을 맞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기획한다큐멘터리다.

고려인 4세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닐루파르 무히디노바(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를 주인공으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최재형 선생의 역사적 활동지역을 따라가며 선생의 활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클래식 연주와 함께 되새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출을 맡은 이지선(국민대 영화전공 2) 씨는 “국민대도 독립운동가 해공신익희 선생에 의해 설립됐으며 이를 성곡김성근 선생이 민족정신을 가지고 발전시켰다”며 “처음 이 다큐를 기획할



국민대 영화전공 학생들이 다큐멘터리 ‘로드멜로디’를 제작했다. /국민대학교

때는 고려인의 애처로운 삶을 중점적으로 보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삶 속에 스며있는 민족애와 희망을 보았다”고 제작소감을 밝혔다.

제작자문을 맡은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의찬 이사(불곰이엔엠 대표)는 “이 다큐는 고려인 동포를 도움이 필요한 애처로운 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젊은 감성으로 조명한 작품”이라며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조국에 대한 사랑과 희망, 통일에 대한 꿈을 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공동으로 기획한 최재형기념사업회의 문영숙 이사장은 “고려인은 슬픈 역사의 주인공이지만, 이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파트너이고 미래의 희망이 되었다”며 “주인공 닐루파르는 최재형기념사업회의

장학생으로 최재형 선생과 오늘날의 고려인,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하나라는 사실을 다큐를 통해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로드 멜로디는 지난해 11월9일 불곰이엔엠이 주최한 ‘제3회 한러청년포럼 All That Russia’ 행사에 초청 상영됐고,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는 불곰’에 소개됐다. 국내에서는 올해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대 영화전공과 학교기업 HAL 엔터테인먼트는 교육부의 학교기업지원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토대로 독립운동가의 삶을 기리는 콘텐츠 제작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미술 대입 정시 실기고사

응시한 수험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5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0학년도 정시모집 미술 실기고사에

/연합뉴스

서울과기대 학생들 “베트남 하노이서 한국어 교육했어요”

9박 11일 일정으로 봉사활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재학생 31명이 참여하는 베트남 해외봉사단이 지난 2일 발대식을 갖고 5일~15일까지 9박 11일간 일정으로 하노이 인근 두옹람(Duong Lam)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서울과기대 베트남 해외봉사단은 2018년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이번 봉사단은 한국어 교육과 체육활동, 문화예술 관련 봉사활동과 노후시설 개보수 활동에도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동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는 동시에 정부과건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 31명이 참여하는 베트남 해외봉사단이 지난 2일 발대식을 갖고 5일~15일까지 9박 11일간 일정으로 하노이 인근 두옹람(Duong Lam)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인다. /서울과기대

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류도형 사회봉사단장은 “이번 봉사

활동은 우리 학생들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2020년 가장 하고 싶은 알바 브랜드 ‘CGV’

알바몬 남녀 알바생 설문조사
 응답자 76% 브랜드 알바 선호

2020년 알바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아르바이트 브랜드 1위에 ‘CGV’가 꼽혔다. 알바생들은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알바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알바몬이 최근 남녀 알바생 67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7%는 브랜드 알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외식, 여가, 카페 등 각 분야 아르바이트 입사지원자가 많은 브랜드 상위

30개 브랜드를 보기로 제시하고 브랜드 알바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들에게 가장 일하고 싶은 브랜드를 복수응답 형식으로 선택하게 한 결과, CGV가 응답률 36.8%로 1위를 차지했다.

CGV에 이어 △교보문고(27.0%) △롯데시네마(26.9%) △GS25(19.5%) △메가박스(16.0%)가 5위권 안에 올랐으며, △CU(15.9%) △투썸플레이스(15.7%) △스타벅스(15.5%) △에버랜드(13.9%) △파리바게뜨(13.2%)가 알바생들이 꼽은 알바하고 싶은 브랜드 상위 10위에 들었다.

/한용수 기자

안운주 교수,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장 취임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는 상허생명과학대학 안운주 교수(환경보건과학과·사진)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 제 18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년이다.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는 1985년 한국환경독성학회로 창립한 뒤 2010년 한국환경독성학회와 환경보건포럼이 통합해 환경독성보건학회로 출범했



응하고 특히 화학물질관련 환경문제에 꾸준히 기여해오고 있다.

안 교수는 2004년부터 건국대에서 재직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임군일 동국대 교수

조직공학재생의학 회장 선출

동국대 재생의공학융합연구원장 임군일 교수(사진)가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이사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차기 회장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1년이다.



/한용수 기자